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8호
2025.11



ISSN 3059-0280

오종원_신혼여행의 짧은 여행기_1

서른다섯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최윤숙(Yoonsuk CHOI)

열여섯번째 원고

김혜현_ 세상에서 가장 쓸모 없는 취미_ 읽기

세번째 원고

김희진_ 춤춤

스물다섯번째 원고

신혼여행의 짧은 여행기_1



오종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나는 지난 9월말(원고 게시 기준 2달 전) 결혼을 하였다. 결혼에 대한 요절복통의 이야기를 글로 쓰려다가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보류하고(그리고 아마 언젠가 결혼에 대한 다양한 회의감으로 글을 하나 버무릴 것 같고), 신혼여행기를 글로 써보고자 한다.

내 결혼식은 저녁 결혼식이었다. 나름 신경 쓴 피로연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이미 새벽 1~2시. 참고로 4시에 일어나 인천공항으로 떠나야 했다. 정말 눈만 붙인 다음 미리 준비된 캐리어를 들고 부랴부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간 버스에서는 시체처럼 잠들었으며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뜨거운 커피를 위장에 쏟아부었다.

우리의 주 목적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지만 경유하는 항공을 예약한 지라 갈 때는 방콕을 들리기로 하였다. 유럽까지 가는 비행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비용 때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경유를 통해 여행지를 늘린다고도 한다. 우리도 태국 방콕에서 약 9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체력이 있거나 눈만 감으면 잘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경유지 여행이다. 계속 밤비행기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방콕을 경유하기 때문에 타이항공을 타게 되었고, 태국 전통 옷을 바탕으로 한 스튜어디스 복장, 손을 모아 합장하듯이 하는 인사 또한 인상적이었다.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비행기 내 비치된 미디어들의 지원 언어 중에 한국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다. 어떤 차별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향신료의 냄새에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국에 대해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첫 기내식으로 나온 로컬 커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으음 이거 생각보다 잘 적응할지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살짝 더운듯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다. 확실히 서울보다는 덥구나. 내 아내는 내리자마자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나는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날씨였다.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향신료 냄새 같은 것이 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왓포 사원으로 향했다. 결혼 전까지 일이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을 제대로 준비 못하였고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야시장 투어를, 아내는 40m의 와불이 유명하다는 왓포사원 정도를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명승지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왓포 사원으로 향하였다. 앞으로도 종종 언급하겠지만 구글AI와 구글맵을 의존하게 되

었다. 네이버나 카카오지도 같은 세밀함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으나 이 두 친구 덕분에 웬만한 것은 찾아갈 수 있었다.

지하철을 통해 이동한 왓포 사원. 우리나라처럼 산 속이나 특정 지역 깊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한 도심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다고 빌딩숲 같은 도시가 아닌 구도심 같은 느낌 이랄까. 근방에는 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시암뮤지엄도 있었다. 아쉽지만 우리는 시판 관계 상 패스해야 했다.

불교의 나라 태국. 우리나라의 불상이나 절이 뭔가 담백하고 아담하거나 살짝 둥그스런 느낌이라면 태국은 뭔가 조금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빨간 십자가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태국에 전반적으로 나지막한 건물들의 뷰에 비해 절 혹은 사원의 탑들이 군대군대 상당히 뾰족하게 보였다. 정중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재밌는 것은 사원만이 아니라 불상의 머리들도 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뾰족뾰족한 탑이 서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태국 공항에 있던 조형물의 머리에도 이런 탑 형태의 뾰족함들이 있었는데 글을 쓰며 찾아보니 이 탑의 형태는 힌두, 크메르 시대의 힌두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한다. 과거 내가 관련 기관에 일하였기 때문인지 불교 이전부터 힌두에서는 이러한 탑 문화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탑은 태국에 자리잡으면서 점점 얇고 뾰족한 형태로 자리잡으며 사원으로 이어지고, 신성시되는 형상의 머리에도 탑을 올리게 된 것 같다.

또 왓포사원에는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절에는 본당 당 하나 내지 세 개의 불상이 있던 것이 떠올랐는데 이곳에는 아예 불상으로 장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상들을 도열하였다. 주르륵 불상인 것이다. 국내의 불상일 경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등 특정 대상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수많은 불상들을 볼 수 있었고 개 중에는 가슴이 볼록한 불상들도 있어서 혹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다.

드디어 와불의 차례. 아예 건물 하나가 와불을 위해 구성된 듯 하였다.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애초 태국의 모든 사찰은 신발을 벗게 되어 있다.) 건물에 들어서니 팔을 꺾고 누워



왓포 사원의 수많은 불상



생각보다 납작한 느낌의 와불

와불의 발바닥은 조형미가 있었고 흥미로웠다.



있는 와불의 머리부터 보인다. 으음... 솔직히 기대보다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통통하고 입체감이 확실한 불상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형의 심도가 얇게 느껴진다. 조금 앞뒤로 납작한 느낌.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의 거대한 불상이나 국내의 통통하고 디테일한 불상처럼 뭔가 헬레니즘의 거대하고 확실한 입체감을 기대했던 것 같다. 사전에 조사를 안 했던 탓인지 왓포의 와불은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였다.

물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함은 인정할 정도였다. 누워있는 와불을 둘러싼 큰 건물이 마치 이 불이나 코트덴트처럼 느껴질 정도일 정도로 규모가 컸고, 와불을 둘러싼 금박의 양이 정말 상당하다는 추론만 할 수 있었다. 건물을 반 바퀴 돌면서 와불의 머리부터 발 끝까지 볼 수 있었는데, 맞은편 벽에는 인상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느낌상으로는 부처의 일생을 태국 전통 화풍으로 표현해낸 것 같았다.

재미있는 것은 발바닥이었다. 발바닥의 발가락 부분에는 세밀하게 지문 같은 것이 있었다. 또 발바닥에는 아마 만다라 같은 그림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는데 와불의 전체를 통틀어 제일 세밀하고 뭔가 영엄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부위였다. 사람들도 발바닥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이제 왓포를 구경하였으니 이제 내가 봐 둔 야시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여기서 구글AI와 작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녀석이 찾아준 야시장의 위치가 틀린 것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곳이 맞다는 AI. 행인들에게 물어보니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더 가야 한 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 1년 내 해당 야시장은 이사를 하였던 것이다. AI는 23년도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그곳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AI를 맹신해선 안되는 구나 한번씩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무튼 도착한 야시장. 태국은 근래 랭썽이라는 요리가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했다는 야시장은 전통 시장이 아닌, 중앙에 랭썽을 팔기 위한 큰 신축 건물이 있고 그 외곽으로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랭썽집과 아이들 같은 느낌이었다. 부스 등도 전부 신형이었다. 나는 전통시장을 기대 했었는데 아쉬움이 없진 않았다.

우리는 랭쌈 중간 사이즈와 파인에플 볶음밥을 주문하였다. 우리나라 광장시장처럼 태국 말과 영어, 한국말을 적당히 섞어 쓰는 젊은이가 주문을 받았는데, 유럽처럼 테이블이 웨이터 할당제 같아 보였다. 관광지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정신없었던 기분. 우리는 혹시나 관광객이라고 잔돈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기우였다.

다시 처음에 말했지만, 나는 동남아의 향신료에 걱정과 우려가 많은 사람이었다. 심할 때는 대만이나 홍콩의 길거리 음식 냄새에 불편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랭쌈과 파인에플 볶음밥은 무척이나 입맛에 맞는 편이었다. 랭쌈이란 요리는 매운 고추를 수북하게 부은 맑은 국에 돼지 등뼈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뼈해장국을 매운 태국 고추 버전으로 맑게 끓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 등뼈들을 손으로 잡고 물어 뜯는데



입에 넣자마자 고추의 맛이 매우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추와 다르게 처음에 만 따끔하고 금방 끝나는 매운 맛. 배고프기도 했던 탓인지 곧 양손에 등뼈를 잡고 물어 뜯기 시작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았고 양도 상당히 많았다. 고수나 기타 향신료 같은 느낌은 나지 않았는데 주문할 때 웨이터가 “노 고수?”라고 물어보더라. 아마 관광객들 입맛에 많이 맞춘 것 같았다.

배불리 먹고 일어나 둘러보니 이 랭썽이란 요리와 함께, 풍성한 해산물 요리를 메인으로 야시장 전체 동에서 홍보하고 있었다. 이 대표 매뉴들은 한자로 된 간판이 별도로 있을 정도였고, 그만큼 중국인들도 많이 찾아 싶었다.

이번 태국 방문에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태국하면 마사지가 아닌가. 이미 결혼준비와 식, 피로연 등으로 엄청 피곤해 있던 와중에 마사지가 너무나 간절했으나 시간에 쫓기었다. 공항에서 시내로 왕복하는 두어 시간, 왓포 사원 두어 시간, 야시장과 식사 두어 시간 정도 하고 나니 시간이 살짝 아쉬웠다. 애초 마사지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였었고. 결국 수많은 마사지 집들을 지나쳐 공항으로 가게 되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 코너로 들어서니 태국의 신화 중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한 큰 조형물이 있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하였지만 머리에 탑을 이은 인간들(약간 손오공과 같은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였다.)이 머리가 여러 개인 용을 양쪽에서 당기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시바신으로 추측되는 신이 서있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크메르가 힌두의 영향을 받아 이런 신화들이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잠깐 들린 것만으로 태국이 이러하고 문화가 어떤 것 같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방콕만 하여도 나쁘지 않은 휴양지의 느낌이 있었다. 특히 음식들이 나쁘지 않았고 노상에서 판매한 리치망고 음료수는 저렴하면서도 무척이나 달콤했다. 무엇보다 향신료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좋았다. 나중에는 가족여행으로 한번 와도 좋겠구나 싶더라.

덧, 그렇게 부랴부랴 도착한 공항에는 항공기 기기 이상으로 결국 1시간 이상 연착이 되고 말았다. 잠을 거의 못 잔 상태로 태국여행을 하었는데, 또다시 야심한 밤이 되어서야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사지를 받고 올걸. 🐷



태국 공항의 조형물. 중심부에 시바신이 서있다.



X

작가 & 전시기획자

그 곳에 가고싶다 : 최윤숙(Yoonsuk CHOI)

....최윤숙 작가님을 알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나에게 작가님과 대화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내 유년 시절 겪은 어머니의 부재로 알게 모르게 작가님에게 애착심을 키우게 되었다.

지난 시간동안 최 작가님이 나에게 들려준 대학 시절 일화를 통해 한국의 70년 ~ 80년대 미대 출신의 작가가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여성 예술가가 작가로서 어떠한 불평등과 수모를 겪었는지도 상상할 수 있었다. 늘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최근 인사동 갤러리 SOM에서 열린 개인전을 방문하여 작가의 가고 싶은 ‘그곳’을 보게 되었다....

해가 질 녘 우리가 느끼는 보이는 경관과 사라지는 경관 사이의 흐려진 경계선처럼 이 두 세계가 공존하는 순간은 바로 작가가 자기 상상의 문에 들어서는 때이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작가는 명상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은 순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풍경은 무한하며 눈을 떠 본 세계보다 더 광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 작가는 초저녁의 황혼과 같이 일상에서 영감을 찾는다. 서울에서 오랜 작업을 한 작가에게 도심 한복판에 볼 수 없는 야생 동물은 작가가 갈망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작가가 상상으로 그린 여우는 이 세계로 진입을 위한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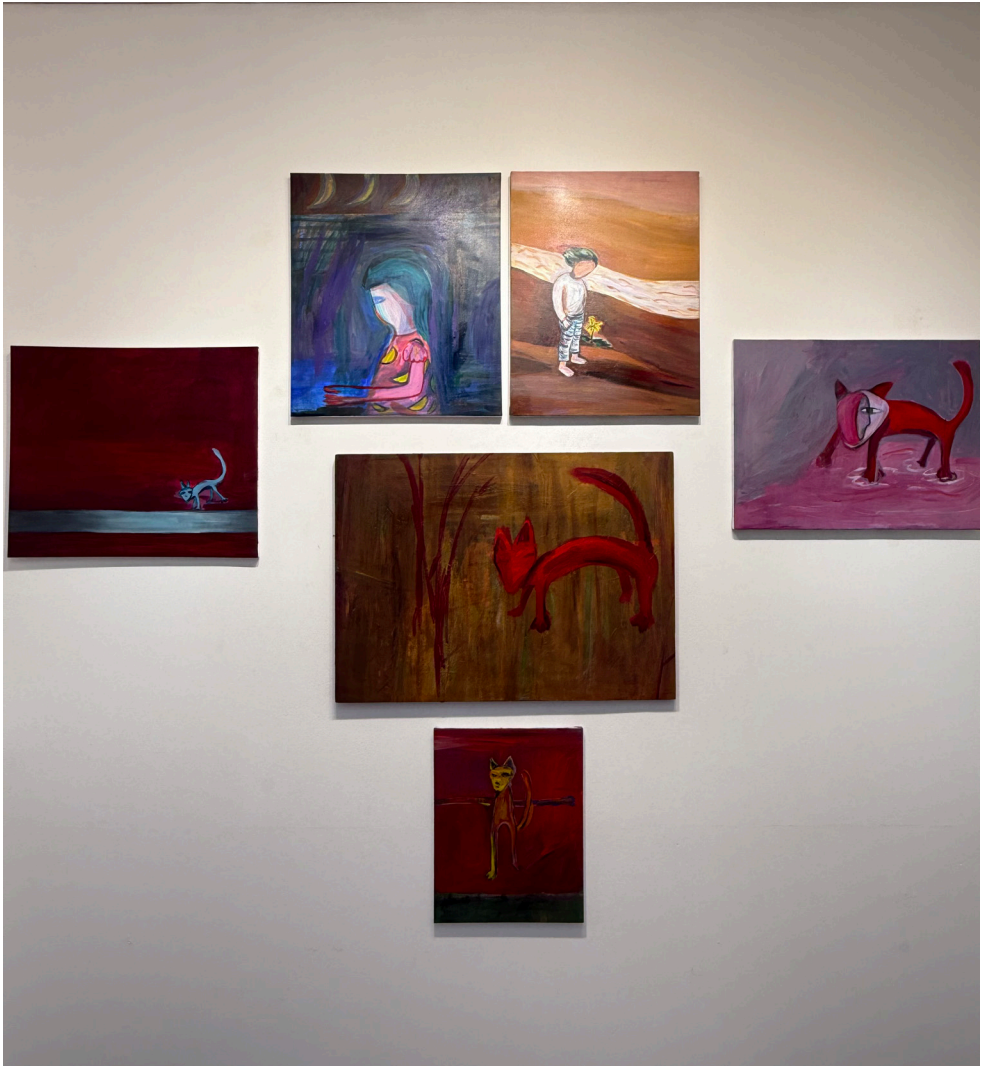
매개체이자 영감이다. 마치 경계선 상을 떠도는 것처럼 여우는 작가가 경험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작가를 인도한다. 우리는 이 여우가 우리가 잃어버린 동물성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창작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꼬리를 세운 여우는 다각도의 얼굴을 드러내며 마치 그림 속 여성의 화신 혹은 작가 자신처럼 드러낸다.

작가가 찾고 갈망하는 유토피아에는 또 다른 자연인 “뿌리”가 있다. 손가락처럼 손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면서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자연성이 결합한다. 이 뿌리는 다른 작품에서는 새와 연결되면서 새로이 작가가 만들어 낸 “뿌리새”가 탄생된다. 본 전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뿌리새는 작가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합된 창조물이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몸에서는 작가 스스로 마치 해체되듯 몸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부재한다. 이로 몸의 해체는 보이는 세계를 없애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객에게 끌어드린다.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듯 작가는 때론 가슴의 살과 근육을 넘어서 갈비뼈를 드러내고 몸의 일부를 없애고 머리와 엉덩이를 교합시킨다. 마치 장운현 감독의 영화 ‘텔미썸딩 (Tell me something, 1999년)’의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살인으로 남성의 몸을 해체하고 없애면서 새로운 몸을 만들듯 작가는 보이는 신체 일부와 보이지 않는 신체 일부를 끊임없이 없애고 결합하려 한다. 특히 엉덩이에 대한 시리즈는 페티시적이면서 작가가 들려 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느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공존”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한다. 이 공존이 타인에게는 백일몽으로, 꿈으로 아니면 허상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유토피아에 대한 집착과 망상은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인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이 세계에 대한 끝없는 상상이 없다면 작품 창조의 욕구 또한 감소할 수 있다. 예술가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살아가는 순간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닐 수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되 우리가 하늘의 별을



쫓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전 파리에서 살 때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퍼포먼스 예술가(Hors Humain)와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다. 그는 5살이 되기 전에 독일 유대인 감옥 옆에서 살아났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기 몸의 한계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권에 이름과 성을 모조리 바꾸면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그대로 심어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1분 1초가 매우 소중하면서도 무한도전이다. 유아독존적인 그가 이 일을 멈춘다면 자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옆에 있던 유명 연예인은 인생에서 늙고 어른이 되면 바로 죽을 때라는 비슷한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예술가로 긴박하고 짧은 호흡을 한 사람도 많다. 또한 늦게 성장하고 늦게야 세상에 이름을 알린 이도 있다. 모두 자신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살아간다. 사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예술가와 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술가의 숨겨진 ‘그곳’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가가 사실 더 예술가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앞으로 최윤숙 작가님의 작업 속의 보이지 않는 그곳이 더 많이 작품으로 보이길 희망한다. 그녀의 날개가 퍼져서 그곳으로 날아가 많은 작품을 남기어서 젊었을 때 다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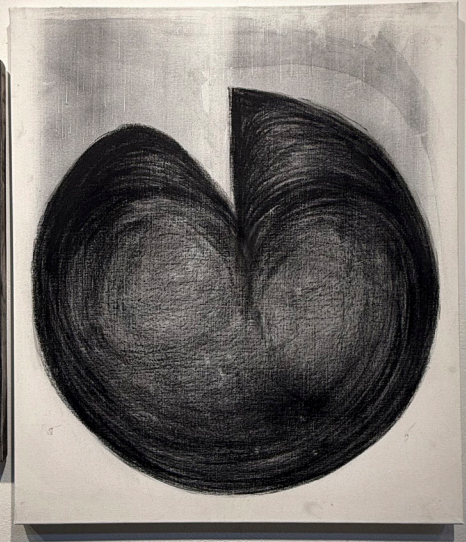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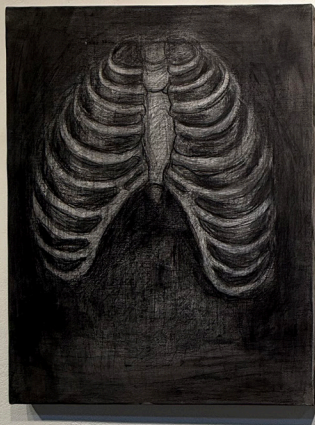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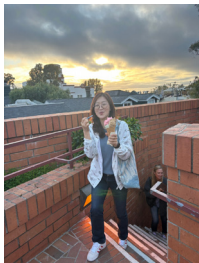
작가 노트

나의 뮤즈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무(無)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게 나의 홀로 있는 방식이다.

... 상처로
잠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욕망으로
찰나로 넘실거리는 것들...







김혜현
4년차 갤러리스트

세상에서 가장 쓸모 없는 취미_ 읽기



사진1_나의 서재: 읽은 책들과 읽어야 할 책들 (평생 소장하고픈 책만 골라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어릴 때부터 읽는 걸 좋아했다. 언제 글을 깨우쳤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 엄마 말로는 여섯 살 무렵 스스로 글자를 익혔다고 한다. 하루 종일 책을 쌓아놓고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어떤 책들을 주로 읽었는지는 흐릿하다. 그나마 선명하게 남아 있는 몇 가지 독서 경험을 떠올리자면, 열 살 이전에 읽었던 성경동화 전집 스무 권, 초등학교 때 들고 다니며 읽었던(그 무거운 걸 말이다) 어린이 백과사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작가 이름이 김진명이라는 것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다시 알았다), 그리고 대학 시절 아파서 과외를 쉬던 날 침대에 누워 읽곤 했던 <빙점>, 결혼 즈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소개된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정도가 있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매주 함께 낭독하며 읽어온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들.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건, 내가 기억하는 행위 자체에 성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무성실함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된다. 결국 진짜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는 수준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억지로 머리에 넣지 않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깜빡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내가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읽는 동안 그 안으로 빠져들어 골치 아픈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란 결국 나에게 판짓의 한 종류다. 읽기에 질리면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아무리 졸려도 끝까지 본다(공포·호러·잔인한 범죄물만 제외). 별 의미 없이 심심풀이로 보고 듣다가도 어느 순간 깜짝 놀라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 주인공에게 홀려 일상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2018년 2월부터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열 번에서 스무 번씩 하던 독서모임들을 최근에 정리했다. 여러 팀과 오래했고, 최근 4년은 시각예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이어왔다. 작년 말 미국에 온 뒤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해 10개월을 버텼다. 며칠 전, 4년 반 동안 매주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을 읽어온 모임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마무리를 고했다. 다른 멤버들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나는 떠나기로 했다. 독서모임 공간도 8년간 이어왔는데, 미국에 오게 되며 그만둘 명분이 생겼다. 공간은 2026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누군가 보기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독서를 8년 만에 멈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여섯 살 때부터 계속 책에 매달려왔고,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책이라는 구원을 붙잡고 살아왔다. 그래서 멈춤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에 가깝다. 그럼에도, 책 읽기는 결국 내게 무용한 것들 중 하나다.

내가 읽기를 ‘무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삶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닿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자기계발서, 윤리적 메시지를 담은 소설, 사랑과 용기와 삶의 진실을 말하는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결국 글자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읽기라는 행위 이전에 살아낸 누군가가 있고, 그 삶이 있어야 이야기라는 형태가 생긴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지금, 많은 사람이 초인공지능이 10~20년 안에 탄생해 인간의 무용함을 드러낼 거라 예언한다. 인간 따위 없어져도 그만인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결정이 인공지능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리라는 것이다. 앞길이 막히면 독서로 눈을 돌려왔던 나의 44년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싶다. 드디어 ‘그만 읽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왔다. 이제는 ‘더 많이 살아가기’를 해보려고 한다.

물론 책은 내 삶을 여러 번 바꿔놓았다. 어리석고 편협했던 나를 정체성의 감옥에서 꺼내주었다.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던 내게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책에서 주입된 정보를 받아들여서만 가능했던 건 아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내 안의 어떤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결국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다. 수만 가지 방향으로 발버둥 쳤지만 나는 매번 나라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책 속에서 줄을 그은 문장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혹은 갖게 될 생각들이었다. 좋아하는 문구란 결국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생각에 다시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이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꺼내보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내 삶의 주제를 받을 수 없다. 각자 자기 삶의 주제를 갖고 태어난다. 그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처럼 자기 역할을 연기할 뿐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 오래 미워하고 자학하고 외면했다. 조금만 나를 예쁘게 바라봐도

좋았을 텐데.

독서와 독서모임을 잠시 멈추는 이유는, 읽는 행위 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보려는 실험 중 하나다. 남들이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다. 2018년 이전의 나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고, 2025년 이후의 나는 그 틀을 벗어나 보려 한다. 눈치보기와 자유로움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괜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바베트의 만찬>의 마지막 장면 속 에너지를 다 소진한 바베트의 모습, <댈러웨이 부인> 속 창가에 선 주인공, 드라마<더 글로리>의 “죽을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동은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런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도 잠시 내려놓고 싶다. 사주를 모르지만, 요즘은 챗GPT에 물어보면 내가 지금 그런 시기라고 한다. 결국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붙잡는다.

하지만 남들 보기에 무용해 보이는 책 속 문장들이 종종 나를 살렸다. 엄마도, 남편도,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오르내림을 나는 책 속에서 발견한 문장들로 버텼다. 나의 정답지이자 문제집 같은, 힘들때 소설도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학창 시절 내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의 장르는 문제집도 있었다.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힘든 가정사를 견디게 해주었다. 뭘 하든 일단 문제부터 풀어야 했고, 아이러니 하게도 문제는 끝없이 이어졌다.

2025년, 이 새로운 곳에서의 10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몸을 많이 쓰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입안은 자주 헐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아이들까지 챙기려니 하루에 세네 시간 자며 버텼야 했다. 그 와중에 정작 내가 원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해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더 뽀족하게 파고들며 살아가고 싶어졌다. 기대했던 것들은 손에서 빠져나가고, 계획대로 되는 일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몸을 던지지 못하고 버티는 이유는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만이 선택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공개는 사후에야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그동안의 독서는 ‘나’라는 도달점에 닿기 위한 여정이었을 뿐이다.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38. 2025.11

“나는 자신의 힘이 결실을 맺고 스스로 강해져,
나를 세상에 주어야 함을 느낍니다.
나는 내 자신의 본질이 힘을 얻어
삶의 운명을 엮어가는 데
명료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11월 둘째 주(1912.11.10-11.16)





사진2_4년 반 동안 독서모임에서 읽었던 신지학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들.
(몇 권은 전자책으로 소장 중이고 아직 못읽은 책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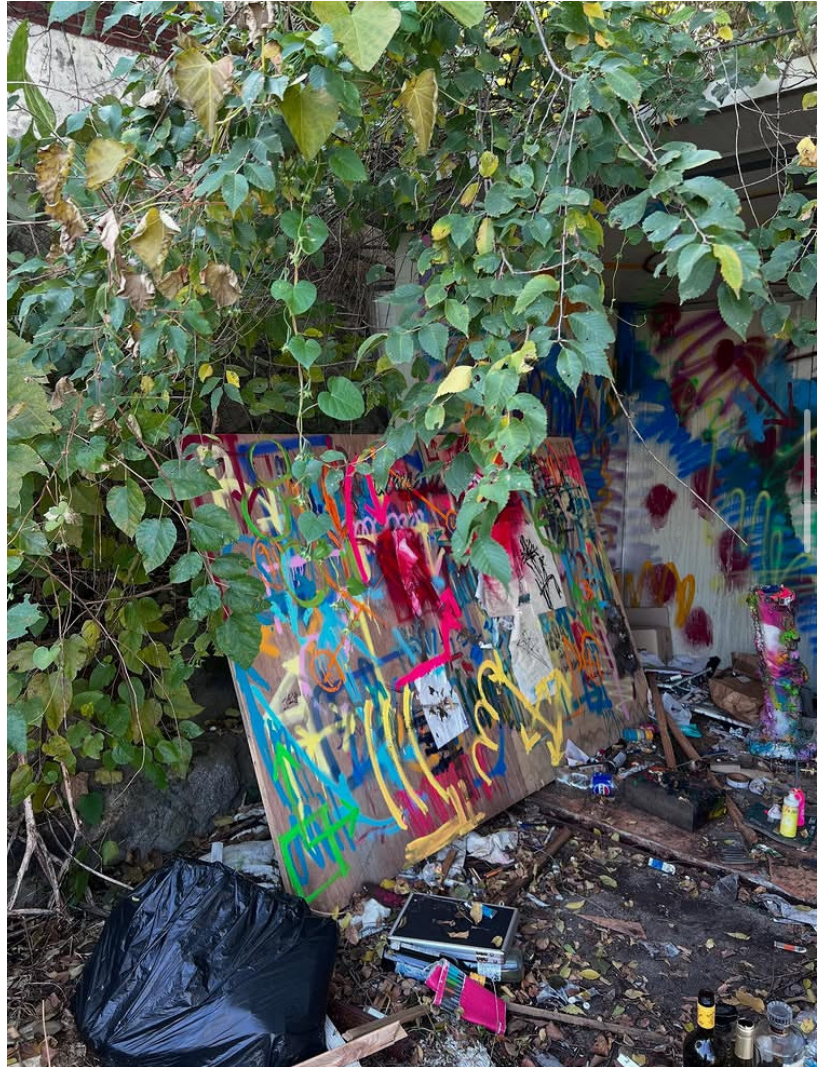
김 희 진

노동자

춤

죽음을 향한 통렬한 춤. 사건 없이 흔적만 가득한 동굴에서 자라기만 한, 자람을 멈춘 적이 달리 없는 덩굴이 먼저 말을 걸 때 내 입을 막는 문장은 보호인가, 회피인가. 이에 나는 약한 가설을 세운다. 숨음과 숨김은 그것의 성공과 무관하게 항상 죄의 판단과 연관하지 아니하며, 남긴 먼지와 들끓는 파동이 언제나 삭제물 동반하므로, 반복도 결코 귀환이 아니다. 이것이 첫째. 합판 위에서 색들은 서로를 덮어 끊임없이 취소하고, 취소의 흔적이 본문을 대체한다. 이것은 둘째. 검은 봉투가 제일 무거운 서사를 품었대도, 그들은 여전히 ‘그림’과 같은 움직임을 찾는다. 크게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극을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체 몸을 감추는 접시들이여. 주변이 중심을 심문하는 동안, 나는 쉽게 답하지 않고 자세를 고친다. 도망의 각도로 몸을 접고, 숨을 낮춘다. 수치심은 옷이지만 피부보다 훨씬 낡은, 직조된, 가죽이기에, 벗기엔 피의 노래가 두려워 남아 떠는 손을 그냥 버틴다. 이 떨림을 나는 춤이라 부른다. 변화를 바라지만 위치를 반복하여 진동하는 일에 머물러 있다.

사건의 시계 또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론의 가설이다. 누구의 손목에서 첫 지금이 눌렸는지 분간할 수 없으므로, (분간할 수 없음이 발화의 전제다.) 장소의 몸짓도 매번 작위 없는 선택의 문으로 열린다. 그러니 저자는 단수일 수 없어서, 나는 시행자가 아니라 ‘통과자’로 진술서에 서명하고 들어셔야 한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합판의 가장자리와, 덩굴의 아로새긴 문장이 부재와 부채감의 서명을 가장 오래 남긴다. 그것이 평생 강요하는 사라짐/사라져야함이야말로 이 상실된 장소의 어머니가 내게 내리는 형벌이자 해방이라는 것을 안다.

여기 모인 물질들은 이미 각자의 성경을 쓴다. 잎맥의 놀림이 알아서 글자를 낳고, 설교한다. 부끄럼과 덧칠하는 모든 행위, 감싸안음은 그 설교의 이단이지만, 이단 없이는 신앙도 바로 서 지 못한다. 그러니 죄와 은총이 한 몸인 채로 나는 원을 긋고, 원을 부수고, 부순 소리만 기억해 떠날 채비를 한다. 환대가 불가한/거절된 바닥에서 나는 무릎을 낮춘다.

악한 가설이 끝내 나를 구한다. 회피와 같던 침묵이 칼날의 두께를 재는 의식으로, 죽음 쪽으로 기울인 춤이 살기 위한 돌연변이로 남아 불처럼 변용하는 피부를 벗겨벗기므로, 벗겨진 나는 다시 또.







동남아 음식은 확실히 취향을 탄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가던 아시아의 로컬 음식(우리나라로 치면 떡볶이나 순대)은 피하는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향이다. 고수도 먹지 못하는 나에게 향채나 거리같이 다양한 향을 쓰는 음식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랬던 나에게 태국 음식은 의외로 입에 잘 맞았다. 물론 이 음식 자체가 원래부터 이런 향과 맛이 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관광객에게 맞춰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후자의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확실히 맵고 짜고 달고 기본적인 맛과 욕구에 충실하면서 별도의 향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 맑고 매운 돼지 등뼈국인 랭쌈도 그랬지만 파인애플 볶음밥의 경우에도, 해산물과 커리, 캐슈넛 등이 들어갔지만 무엇 하나가 크게 튀다는 느낌이 없이 맛있었다. 물론 더 먹어봐야 태국음식이 원래 그러한 지 글로벌화 된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표지의 사진은 요즘 한참 인기라는 랭쌈. 좌측의 사진은 파인애플 해산물 볶음밥.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11 / 38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X, 오종원